

운 기 론*

운 창 령**

I. 緒 論

五運, 六氣는 韓醫學의 基礎理論中的 한 分野로 古人들이 自然의 氣候에 대한 오랜 관찰과 경험이 쌓여서 그 結論으로써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주로 氣候의 變化를 豫測하고 이에 따른 疾病의 豫防과 治療에 重要하게 活用된다. 運氣學의 內容은 범위가 넓어 古代의 天文學, 地理學, 氣象學, 醫學 등을 包括하고 있다. 그래서 內經에서는 “上知天文하고 下知地理하며 中知人事라야 可以長久”라고 하였는데 이는 醫師는 반드시 天時氣候의 變化和 地理環境의 氣候特徵, 그리고 사람과 自然의 關係등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疾病의 治療에 있어서 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는 內容이다. 《運氣要訣》에서는 그 첫머리에 “治不法天之紀 地之理則災害至矣라…… 不知年之所加와 氣之盛衰와 虛實之所起면 不可以爲工矣니 由事觀之컨데 不知運氣而爲醫면 欲其無失者 鮮矣”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五運六氣가 韓醫學 理論 및 疾病治療에 重要的 意義가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1. 自然氣候의 變化規律을 研究함

自然界의 氣候變化는 複雜多端하지만 오랜 관찰과 研究를 통해서 보면 一定한 秩序에 의해 變化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每年의 季節에는 春溫, 夏熱, 秋涼, 冬寒의 變化가 있고 每日의 氣溫變化에도 아침은 따뜻하고 낮은 뜨겁고 저녁은 서늘하고 밤은 추운 變化가 있다. 이러한 一年과 一日의 氣候와 氣溫의 一定한 變化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正常의 氣候이다. 地域環境에 있어서도 東方의 氣候는 溫和하고 바람이 많으며 南方의 氣候는 덥고 熱이 많으며 西方의 氣候는 서늘하고 乾燥하며 北方의 氣候는 차고 추우며, 中央의 氣候는 多濕한데 이러한 것은 地理環境과 氣候의 正常의인 關係이다. 이것이 바로 五運主運과 六氣主氣의 變化의 秩序이며, 그리고 이러한 秩序와 상반되는 것이 곧 客運과 客氣의 異常氣候變化이다.

* 제2차 한방간호학연구회 간호학술대회에 게재되었던 자료임

** 대전대학교 한의대 교수

2. 氣候變化的 豫測

正常的인 氣候變化는 물론 規律性이 있다. 그렇지만 氣候의 異常變化는 複雜하고 多變的이다. 運氣學에서 五運의 太過不及, 主運과 客運사이의 生克逆順, 六氣의 客主加臨, 五運과 六氣의 相得과 不相得, 運과 氣의 同化關係與否등은 氣候의 異常變화와 이것의 生物과 人體에 대한 影響을 研究하고 豫測하는 重要內容들이다. 醫師의 運氣에 대한 研究는 人類를 위해서 有益한 貢獻을 할 수가 있다. 三國時代의 軍事家인 諸葛亮은 古代의 天文學, 氣象學을 運用하여 바람, 비, 안개 등이 盛行하는 날짜를 豫測하여 歷史上에서 草船借箭하고 借東南風했던 사실이 있다.

사람과 自然界의 五運六氣는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 素問의 六節藏象論에는 “天食(사)人以五氣하고 地食(사)人以五味하니 五氣入鼻하야 藏于心肺하야 上使五色修明하며 音聲能彰하고 五味入口하야 味有所藏하야 以養五氣하니 氣和而生하고 津液相生하면 神乃自生이라”고 하였다. 自然界의 空氣는 人體의 呼吸을 供給하는 物質이고 自然界에서 생산된 五穀은 人體에 營養을 供給하는 飲食物質이 되므로 人體가 生存하는데 가장 重要한 物質은 모두 自然界의 五運六氣와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五運의 太過와 不及, 六氣의 至而未至, 或未至而至, 非其時而有其氣등의 異常氣候變化는 自然界의 生物에 나쁜 影響을 미쳐 草木이 不榮하거나 農産物의 作況不振등의 狀況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人體의 健康에도 有害한 作用을 일으킨다.

3.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함

運氣學說은 氣候變化를 研究하는 것이 主要한 內容인데 醫師들은 時令과 節氣의 異常變化에 根據하여 事전에 미리 氣候變化로 因해 發生하는 여러 疾病들을 豫防하고 治療할 수 있다. 素問의 四氣調神大論에서 “夫四時陰陽者는 萬物之根本也라 所以로 聖人은 春夏에 養陽하고 秋冬에 養陰하야 以從其根이라…… 逆其根則伐其本하며 壞其眞矣라…… 逆之則災害生하고 從之則荷疾不起”라 하였다. 四時陰陽의 氣候變化는 自然界의 萬物이 生長化收藏하는 根本問題이다. 만일 正常과 異常變化를 把握하여 變化의 規律를 어기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病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氣候의 變化를 把握하고 있는 醫師는 春夏에 養陽하여 겨울의 추위에 의한 病을 미리 豫防하고 秋冬에 養陰하여 여름의 더위에 의한 病을 豫防하는 것이다.

素問의 五常政大論에서 “必先歲氣하야 無伐天知라”고 하여 疾病을 治療할 때 氣候變化에 根據하여 하고 또 因時制宜의 藥品을 選用할 것을 強調하였다. 素問의 至眞要大論에서 말한 “司天之氣 風淫所勝에 平以辛涼하고 佐以苦甘이니 以甘緩之하고 以酸瀉之라”등의 內容은 運氣의 變化에 따른 治療原則을 說明하고 있는 部分이다.

4. 內經을 研究하는데 基礎를 提供함

運氣學說은 中醫學 理論中の 하나로서 歷代 韓醫學 書籍속에 散在되어 있다. 특히 黃帝內經 素問의 天元紀大論등의 七篇大論은 거의 모두 運氣學에 對한 內容이 실려 있다. 이 七篇은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으로 素問전체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漢代의 傷寒論, 清代의 溫病學 역시 모두 五運六氣의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五運六氣를 工夫하지 않고서는 韓醫學의 遺産을 繼承 發展시키고, 內經의 學術理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甚한 困難이 必須的으로 따르게 된다. 따라서 運氣學說은 韓醫學을 研究하고 韓醫學의 寶庫를 發掘하는데 있어 하나의 重要한 門路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5. 運氣와 陰陽五行의 關係

運氣學의 理論은 깊고 어려우며 用語가 까다롭고 哲學의 背景이 深奧하여 一般人들이 쉽게 工夫해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重要한 內容은 모두 陰陽五行이 基礎를 이루고 있으므로 단지 陰陽五行의 變化規律만 익숙하게 把握하고 있으면 理解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醫宗金鑑의 運氣要訣에서는 “醫明陰陽五行理라야 始曉天時民情이라 五運五行五氣化요 六氣天地陰陽生이라” 하였다. 이는 五運을 研究하려면 木火土金水 五行으로 도구를 삼고 六氣를 研究하려면 陰陽으로 基礎를 삼아야 한다는 內容이다. 따라서 運氣를 工夫하는데 있어 먼저 陰陽五行의 理致에 밝지 못하다면 그 學問이 成就될 수가 없는 것이다.

陰陽五行은 韓醫學術의 基礎理論으로 人體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 辨證論治 등의 方面을 論述하는데 있어서 이것으로 基礎를 삼지 않는 것이 없다. 五運六氣의 研究는 반드시 陰陽五行으로 도구를 삼아야만 비로소 運氣의 正常과 異常關係를 說明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運氣學說과 現代科學

運氣學說은 現代科學에서의 時間生物學, 氣象學, 時間醫學, 邊緣科學(두가지 또는 여러가지 學科를 基礎로 하여 發展시킨 科學) 物候學의 範疇에 屬한다. 物候學은 生物學과 氣象學 사이의 邊緣科學이다. 物候學은 植物이 一年中에서 生長하여 蓄盛하거나 마르게 되는 狀況, 또는 動物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各種의 現狀들, 例를 들어 楊柳綠, 桃花開, 雁始來, 燕復返 등을 研究하여 이러한 生物들의 生態와 特徵을 記錄하여 自然界의 氣候變化와의 關係를 說明하는 學問으로 이는 바로 運氣學에서 研究하는 1年 365日 25刻속에 24節氣와 72候가 있는 것과 바로 一致하는 內容이다. 이러한 內容은 2千餘年 以前에 우리의 先人들이 五運六氣에 대한 研究에 대단히 細密했음을 說明하고 있는 것들이다.

II. 干支와 甲子

十干과 十二支는 古人들이 紀年(여기서 紀는 記 或은 計의 뜻이다.), 紀月, 紀日, 紀時하는 曆法에 주로 使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五運과 六氣를 演繹하는 符號로 使用하였으므로 이것을 떠나서는 五運六氣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十干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로 五運에 配合시키고(十干統運), 十二支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로 六氣에 配合시키며(十二支配六氣) 干가 相合하여 이루어진 甲子(干支相合)에 의해 各年の 氣候變화와 發病情況을 推演하고 있다. 이에 劉溫舒는 “天氣始於甲干하고 地氣始於子支者는 乃聖人이 究乎陰陽重輕之用也니 著名以彰其德하고 立號以表其事라 由是로 子甲相合 然後에 成其紀하면 遠可步於歲而統六十年하고 近可推於日而明十二時여 歲運之盈虛와 氣令之早晏과 萬物生死와 將今驗古를 咸得而知之오 非特是也라 將考其細而知人未萌之禍福하고 明其用而察病向之死生하니 則精微之義를 可謂大矣哉”라 하여 十干과 十二支의 德을 讚頌하고 있다.

이에 運氣學說의 內容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干支에 대한 깊은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어 五運六氣의 考察에 앞서 干支에 관한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干支에 對한 歷史的 考察

通鑑의 黃帝紀에 이르기를 “命大撓하여 作甲子”라 하고 外紀에 “帝命大撓하여 探五行之情하고 占斗剛

所建하여 始作甲子”라 하였으며 史略에서도 “命大撓 占斗建하여 作甲子”라 하여 一般的으로 黃帝가 그의 臣下인 大撓에 命하여 大撓가 最初로 天干과 地支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 干과 支의 意義

干은 天氣의 運行을 나타내고 支는 地氣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天氣는 事物化生の 根幹이 되므로 幹이라고도 하며 地氣는 事物化生の 枝葉이 되므로 枝라고도 한다. 天干은 $5 \times 2 = 10$ 으로 十個로 構成되고 地支는 $6 \times 2 = 12$ 로 12個로 構成된다(天氣인 五運과 地氣인 六氣에 각각 陰陽이 있기 때문이다).

3. 十干

1) 十干紀日

十干은 처음 날짜를 記錄할 때 使用하였다. 北宋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甲은 乃陽內而陰尙包之니 草木이 始甲而出也라

乙者는 陽過中이나 然이나 未得正方하여 尙之屈也라 又云乙은 軋也니 萬物이 皆解孚甲하고 自抽軋而出之라

丙은 乃陽上而陰下하고 陰內而陽外라

丁은 陽氣強하여 適能與陰氣相丁이라 又云丙은 炳也니 萬物이 炳然著見而強也라

戊는 陽土也이 萬物을 生而出之하고 萬物을 伐而入之라

己는 陰土也니 無所爲而得己者也라 又云戊는 茂也오 己는 起也니 土行四季之末하여 萬物含秀者를 抑屈而起也라

庚은 乃陰干陽이니 更而續者也라

辛은 乃陽在下하고 陰在上하니 陰干陽이 極於此니라 庚은 更故也오 而辛은 新也니 庚辛皆金으로 金味辛은 物成而後有味크새라 又云萬物은 肅然更茂하고 實이 新成하나니라

壬은 乃陽氣受胎하고 陰壬之니 乃陽生之位오 壬而爲胎는 與子同意라

癸者는 揆也니 天令이 至此면 萬物閉藏하여 懷妊於其下라가 揆然萌芽”라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十干의 順序는 萬物이 發生하여 자라고 蕃盛하고 衰老하고 死亡했다가 다시 始生하는 順序를 象徵하고 있다. 즉,

甲은 어린 싹이 껍질을 깨고 初生하는 것이요(剖符出甲)

乙은 어린 싹이 꾸불꾸불 점차 뻗어 자라는 것이요(奮軋于乙)

丙은 陽盛氣充하여 生長이 顯著한 것이요(陽道明炳)

丁은 不斷히 썩썩하고 크게 자라는 것이요(丁壯大盛)

戊는 더욱 더 茂盛해지는 것이요(豐懋于戊)

己는 成熟의 極이요(理紀于己)

庚은 열매 맺고 收斂하여 生命이 장차 여기서 바뀌어지는 것이요(斂庚于庚)

辛은 成熟辛殺한 뒤에 새로운 生機가 또 潛伏하는 것이요(悉新于辛)

壬은 陽氣가 또 새로운 生命을 妊養하는 것이요(陽氣懷妊)

癸는 第二代의 生命이 또 開始하려고 宿根이 發生을 待期하고 있는 것이다(陳揆于癸)

以上の 內容은 一年中의 變化속에 나타나는 生氣의 變化를 十干에 配合해서 說明한 것인데 生氣의 變化를 具體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草木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草木을 빌어 解析한 것이다. 그러나 十干은 天之陰陽인데 地道의 草木으로서 說明한 理由는 무엇인가? 이는 天氣가 煖然하여 봄이

되면 땅도 더불어 봄을 이루고 天氣가 淒然하여 가을이 되면 땅도 역시 가을이 되기 때문이다. 또 中庸에 “天地生物이 必因其材而篤焉하나니 故로 栽者를 培之하고 傾者를 覆之니라”라 하고 周易에서 “天地變化에 草木蕃”이라 하였으니 草木으로 十干을 說明한 理由를 다시 한번 確認할 수 있다.

2) 十干의 陰陽配屬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甲丙戊庚壬爲陽 乙丁己辛癸爲陰”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한 理由에 대해 傷寒直格에서는 “凡先言者는 爲剛爲陽이오 後言者는 爲柔爲陰也”라 하여 陽先陰後의 理論으로 說明하고 있다.

3) 十干의 兄弟五行配屬

天干은 陰陽兩種 뿐만 아니라 五行으로 分別 配合된다. 素問의 藏氣法時論에서 “肝主春 其日甲乙(王冰注 甲乙爲木 東方干也) 心主夏 其日丙丁(王冰注 丙丁爲火 南方干也) 脾主長夏 其日戊己(王冰注 戊己爲土 中央干也) 肺主秋 其日庚辛(王冰注 庚辛爲金 西方干也) 腎主冬 其日壬癸(王冰注 壬癸爲水 北方干也)”라 하였다.

4) 十干의 夫婦五行配屬

素問의 五運行大論에서 “土主甲乙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 하여 甲乙가 化土하고 乙庚이 化金하고 丙辛이 化水하고 丁壬이 化木하고 戊癸가 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類經圖翼에서는

“甲剛木이 克己柔土 爲夫婦而成土運하고
乙柔木이 嫁庚剛金而成金運하고
丁陰火가 配壬陽水而成木運하고
丙陽火가 娶辛柔金而成水運하고
戊陽土가 娶癸陰水而成火運”이라 하였다.

4. 十二支

1) 十二支紀月

十二支는 처음 달을 記錄하는데 使用하였다.

2) 十二支의 具體的 概念

劉溫舒는

“子者는 北方至陰寒水之位而一陽肇生之始니 故로 陰極則陽生이라 壬而爲胎하고 子之爲子니 此十一月之辰也라
丑은 陰尙執而紐之라 又丑은 陰也며 助也니 謂十二月은 終始之際라 以結紐爲名焉이라
寅은 正月也니 陽已在上하고 陰已在下하여 人始見之始라 故로 律管飛灰以候之하나니 可以述事之始也라 又寅은 演也며 律也니 謂物之津塗라
卯者는 日升之時也라 又卯는 茂也니 言二月에 陽氣盛而孳茂라
辰者는 陽已過半이니 三月之時에 物盡震而長이라 又謂辰은 言震也라
巳者는 四月이니 正陽而無陰也라 自子至巳 陽之位니 陽於是當이라 又巳는 起也니 物畢盡而起라

午者是 陽尙未屈한데 陰始生而爲主라 又云午는 長也며 大也니 物至五月하면 皆滿長大矣니라
 未는 六月이니 木已重而成矣라 又云 未는 味也니 物盛而有味니 興辛同意라
 申者是 七月之辰이니 申은 陽所爲而已라 陰至於申 則上下通而人始見이라 白露葉落이 乃其候也니 可
 以述陰事以成之니라 又云申은 身也니 言物體皆成이라
 酉者是 日入之時니 乃陰正中八月也라 又云酉는 緇也니 萬物이 皆緇縮收斂이라
 九月은 戌이니 陽未既也라 然이나 不用事하고 潛藏於戌土中하니 乃乾位戌이 爲天門故也일새라 又云
 戌은 滅也니 萬物이 皆衰滅矣라
 十月은 亥니 純陰也라 又亥는 劾也니 言陰氣劾殺萬物”이라고 하였다.

3) 十二支의 陰陽配屬

十二支의 陰陽配屬은 十干에서 말한 것처럼 陰陽奇偶의 原理에 따른다. 卽 一, 三, 五, 七, 九, 十一의
 位置에 順序하거나 一, 三, 五, 七, 九, 十一의 六個月은 모두 奇數로 陽에 屬하여 子, 寅, 辰, 午, 申, 戌
 의 六支는 모두 陽支가 된다. 반대로 二, 四, 六, 八, 十, 十二에 位置하는 地支나 月建은 모두 偶數로 陰
 에 屬하여 丑, 卯, 巳, 未, 酉, 亥의 六支는 모두 陰支가 된다.

4) 十二支의 方位五行配屬

類經圖翼의 五行統論에서 “十二支는 以應月하니 地之五行也라 子陽亥陰曰水오 午陽巳陰曰火오 寅陽卯
 陰曰木이오 申陽酉陰曰金이오 辰戌陽丑未陰曰土”나 醫學入門의 運氣條에서 말하는 “又以地支循環次序
 로 言之면 寅卯는 屬春하니 木也오 巳午는 屬夏하니 火也오 辰戌丑未는 屬四季하니 土也오 申酉는 屬秋
 하니 金也오 亥子는 屬冬하니 水也”라 하였다.

5)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配屬

素問의 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에 上見少陰하고 丑未之歲에 相見太陰하고 寅申之歲에 相見少陽하고
 卯酉之歲에 相見陽明하고 辰戌之歲에 相見太陽하고 巳亥之歲에 相見厥陰하니 少陰이 所謂標也오 厥陰이
 所謂終也라 厥陰之上에 風氣主之하고 少陰之上에 熱氣主之하고 太陰之上에 濕氣主之하고 少陽之上에 相
 火主之하고 陽明之上에 燥氣主之하고 太陽之上에 寒氣主之”라 하였다. 十二支에 六氣와 三陰三陽을 配
 合하여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地支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三陰三陽	少 陰	太 陰	少 陽	陽 明	太 陽	厥 陰
六 氣	君 火	濕 土	相 火	燥 金	寒 水	風 木

이렇게 配合되는 간단한 理論하나를 紹介하면, 十二支의 前六支는 陽에 屬하고 剛에 應하며 後六支는
 陰에 屬하고 柔에 屬한다. 그리하여 이들의 前後를 配合하면 또한 陰陽의 으로 結合되어 子午, 丑未, 寅
 申, 卯酉, 辰戌, 巳亥의 六對를 形成한다. 이러한 然後에 五行相生의 次序로 이들을 配列하면 곧 上述한
 相配情況을 이루게 된다.

5. 甲子(干支相合)

天干과 地支를 配合한 것을 甲子라 부른다. 甲子는 後漢 光武帝 以後 紀年에 使用되었다.

Ⅲ. 五 運

運이란 것은 運行이나 律動等の 要因과 象을 表現하는 律動概念이다. 여기에다 五字를 合하여서 五運이라 한 것은 五行法則이 變化함으로써 이루어지는 統一體의 變化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宇宙變化의 本質인 概念이나 法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自律的으로 宇宙가 變化하는 法則과 象 즉, 그의 內面에서 일어나는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五行이라고 하면 自然自體의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이요, 五運이라 하면 五行이 實現하는 自律現象의 變化自體의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五行法則이 自律的으로 變化하는 要因이 運이므로 運에는 역시 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의 다섯가지가 있다.

自然界中の 一年四時의 氣候變化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와 循環運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四季節은 五行의 概念을 援用하여 春屬木, 夏屬火, 長夏屬土, 秋屬金, 冬屬水로 歸類할 수 있으니, 一年 四季節의 氣候變化가 쉬지 않고 循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木, 火, 土, 金, 水의 五行이 循環活動을 계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木, 火, 土, 金, 水의 五運은 實際上으로 自然界중 各 季節氣候의 正常的의며 或은 異常的인 變化規律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중 土運은 一年中の 轉變時期이며 季節의 中央인 長夏의 變化를 나타낸다.

五運에는 大運 主運 客運의 三種類가 있는데 十干과 五音을 活用하여 推算하고 있으며 平氣 太過 不及으로 三變하고 있다.

1. 十干統運(十干化運)

五運을 演繹하는 符號로서는 天干을 使用하고 있는데 每年 甲子의 年干을 活用하여 五種의 不同한 氣象의 變化를 觀察하고 있다.

十干의 五行配屬은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이나, 五運의 變化는 이와는 달리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의 夫婦五行에 立脚하여 變化하고 있다. 이를 五運行大論에서는 “土主甲己하고 金主乙庚하고 水主丙辛하고 木主丁壬하고 火主戊癸”라 表現하고 있다. 天干의 五運이 五行上에 있어서 十干의 兄弟五行 配屬과 配合이 다른 理由는 五行이란 五元質의 基本法則으로 五季等 時間의 動靜에 의한 變化를 일으킬 뿐이므로 五方과 같은 方位나 場所의 固定的인 것을 確定한 것이고, 五運이란 宇宙가 自律運動을 하는 變化現象으로서의 法則이므로 方位와 같은 固定的인 規定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五音建運

五音建運이라는 말은 宮商角徵羽의 清濁과 高低와 長短이 不同한 五音에 五運을 配合하고 太少를 나누어 氣化의 差異를 推算하는 方法을 나타내는 말이다. 五音이란 五行의 聲音으로 宮은 土音이 되고 商은 金音이 되고, 角은 木音이 되고 徵는 火陰이 되고 羽는 水陰이 된다. 그리고 五運에는 陽年과 陰年이 있으므로 陽年(太過年)에는 太字를 加하고 陰年(不及年)에는 少字를 加하며, 平氣年에는 正字를 加하여 氣化의 差異를 區別한다.

3. 大運

大運은 每年마다 金년의 氣候變化를 總括的으로 主管하는 것을 말한다. 素問의 六元正紀大論에서 “先立其年하여 以明其氣”라 하였는데 이는 大運을 確定하는 根據를 밝힌 것으로 十干統運이 곧 大運을 決定하는 方法이 된다.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 “甲己之歲에 土運統之하고 乙庚之歲에 金運統之하고 丙辛之歲에 水運統之하고 丁壬之歲에 木運統之하고 戊癸之歲에 火運統之하고 丁壬之歲에 木運統之하고 戊癸之歲에 火運統之”라 한 것이 곧 大運을 말한 것이다. 즉 天干에 甲己가 든 해에는 土運이 大運이 되고 乙庚이 든 해에는 金運이 大運이 되며, 丙辛이 든 해에는 水運이 大運이 되고, 丁壬이 든 해에는 木運이 大運이 되며, 戊癸가 든 해에는 火運이 大運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某年の 年干만 알 수 있다면 十干統運의 理論에 根據하여 쉽게 그 해의 大運을 把握할 수가 있다.

大運은 한 해 동안의 氣候特徵과 物化特徵과 發病規律 등의 情況을 모두 表示하고 있으므로 또한 歲運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某年の 大運만 알 수 있다면 五行의 特性和 生克關係에 根據하여 當年 氣候變化의 情況에서부터 人間에 미치는 影響까지 大略的인 判斷을 할 수가 있는데 各年の 特點은 五行의 特性和 一致하고 있다.

例를 들어 大運이 土運이라면 이 해의 氣候變化는 濕과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고, 人體 臟腑上에서는 脾胃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는 濕, 脾, 胃가 五行의 歸類에 있어서 모두 土에 屬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運이 金運이라면 이 해의 氣候變化는 燥와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고, 人體 臟腑上에서는 肺, 大腸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는 燥, 肺, 大腸이 五行上에서 모두 金에 屬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運이 水運이라면 이 해의 氣候變化는 寒과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고, 人體 臟腑上에서는 腎, 膀胱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는 寒, 腎, 膀胱이 五行上에서 모두 水에 屬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運이 木運이라면 이 해의 氣候變化는 風과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고, 人體 臟腑上에서는 肝, 膽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는 風, 肝, 膽이 五行上에서 모두 木에 屬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運이 火運이라면 이 해의 氣候變化는 熱과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고, 人體 臟腑上에서는 心, 心包絡, 小腸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 이는 熱, 心, 心包絡, 小腸이 五行上에서 모두 火에 屬하기 때문이다.

大運은 하늘에서 作用하는 司天之氣와 땅에서 作用하는 在泉之氣의 사이인 天地之中 氣交之分인 中位에서 作用하므로 또한 中運이라고도 稱한다. 素問의 六元正紀大論에서 “天氣不足하면 地氣隨之호대 運居其中而常先也”라 하였는데 이는 司天之氣의 不足을 좇아 在天之氣가 上昇하고 在天之氣의 不足을 좇아 司天之氣가 下降하는데 歲運의 位置는 天地氣交之分에 있으므로 地氣가 上昇함에 앞서 大運이 먼저 上昇하고, 天氣가 下降함에 앞서 大運이 먼저 下降함을 말한 것으로 大運이 中運이 되는 理由를 說明한 말이다.

위에서 말한 大運의 內容을 綜合해서 말해 보면 大運은 一年之氣의 變化를 主管하고 土運에서 始作하여 五行相生의 順序를 따라 太過之運과 不及之運이 交叉하여 五年마다 한 번씩 循環하며 氣交之分의 中位에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主運

主運은 木, 火, 土, 金, 水의 五運이 春, 夏, 長夏, 秋, 冬의 順序로 各 季節마다 一定하게 作用함을 말하는데 이는 每年마다 固定不變하므로 主運이라 한다. 主運의 順序는 언제나 木에서 始作하여 五行相生의 順序로 運行하여 水에서 끝나며 다시 木運으로 連結된다.

每運은 各各 七十三日 零五刻씩 支配하는데 이를 一步라 하고 따라서 每歲는 五步로 構成되며 五運之數를 綜合하면 三百六十五日 二十五刻이 되어 一歲를 이룬다. 初運은 언제나 大寒日에서부터 起始하는

데 이러한 原則에 立脚하여 主運을 推算해 보면 初運인 木運은 大寒日에서부터 春分後十三日(或清明前三日)까지 支配하고, 二運인 火運은 春分後十三日에서부터 芒種後十日까지 支配하고, 三運인 土運은 芒種後十日에서부터 處暑後七日까지 支配하고 四運인 金運은 處暑後七日에서부터 立冬後四日까지 支配하고 終運인 水運은 立冬後四日에서부터 大寒日까지 支配하게 된다.

各運의 特點은 大運에서처럼 五行의 特性과 一致하는데 例를 들어 木運이 用事할 때 이 期間의 氣候變化는 風과 密接한 關係가 있고 人體臟腑에 있어서는 肝의 作用과 密接한 關係가 있게 된다. 나머지도 이에 따라 推算하면 쉽게 理解할 수가 있다.

5. 客運

客은 主와 相對的인 말로서 客運은 一年의 五季 즉, 春, 夏, 長夏, 秋, 冬 등 五季節중의 特殊 氣候變化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每年의 五步는 어느 步이던지 하나의 主運과 客運이 同時에 作用하는데 主運은 年年 不變하나 客運은 十年에 걸쳐 年年 不同하여 客之來去와 恰似하므로 客運이라 부른다. 客運이 運之上에서 連行하는 것은 六氣中의 客氣가 主氣之上에서 連行하는 것과 꼭 같은 理致이다.

每年의 客運도 역시 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의 五種으로 나뉘며 支配하는 期間과 交叉時刻는 主運과 같다. 客運에 있어서는 各種의 特點은 大運, 主運에서와 마찬가지로 五行의 特性과 一致한다. 例를 들어 어느 運季의 客運이 土運이라면 이때의 氣候變化는 濕과 密接한 相關性이 있고 人體臟腑上에 있어서는 脾와 密接한 關係가 있게 된다. 나머지도 이에 따라 類推할 수 있다.

客運이 비록 해마다 輪轉하고 있지만 또한 一定한 規律이 있다. 客運은 每年의 大運을 初運으로 삼고 五行相生의 順序에 따라 五步를 運行하면 客運의 初運에서 終運까지가 決定된다. 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甲己年은 모두 土運이 되는데 甲年은 陽土이므로 太宮이 되고 己年은 陰土이므로 少宮이 된다. 甲年의 해에는 太宮의 陽土가 初運이 되고 太少相生과 土生金에 의하여 少商이 二運이 된다. 少生太하고 木生火하니 太徵가 終運이 된다. 그리고 己年의 해에는 少宮의 陰土가 初運이 되고 少生太하고 土生金하니 太商이 二運이 되며 太生少하고 金生水하니 少羽가 三運이 되고, 少生太하고 水生木하니 太角이 四運이 되며, 太生少하고 木生火하니 少徵가 終運이 된다.

IV. 六 氣

六氣란 것은 地球의 運動過程에서 五行의 質에 變化를 일으켜서 運行之氣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됨으로써 六種의 氣가 된 것인데 이것은 地球에만 있는 氣이다. 다시 말하면 五行이란 것은 虛空에 있는 五行星團이 各各 自己의 光을 發射하는 바 이 光들은 그들이 지나고 있는 性質 그대로의 光인 것이다.

宇宙間에는 이 氣運들이 彌滿하고 있는데 이 氣運이 運動을 始作하면 五運으로 變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五運의 氣化作用이 地球 周圍에 集中하게 되면 地球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變化하는 것이다.

그런데 原天之氣(五行)가 地球 周圍에 集中이 되고 또 그것이 變化하여서 六氣를 이루는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地球는 坤(☷)의 象으로 되어 있어 中이 虛하기 때문에 萬物(五行氣)을 전부 包容할 수 있는 德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地球는 그 回轉軸이 23度7分 가량 傾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無根之火인 相火라는 새로운 불(火)이 하나 더 불어나게 되어서 五運과 相火가 合하여 六氣로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五運과 六氣의 差異點을 살펴보면 五運은 天氣로 하늘에서 作用하는 無形의 造化氣運이고(生만 이룸), 六氣는 地氣로서 五運이 地球에서 現實化되어 作用하는 具體的인 氣運(成을 이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宇宙의 모든 變化는 五運과 六氣의 勝負作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이를 天地運動이라고 하니 이는 곧 五六의 運動이며 干支變化의 運動인 것이다.

六氣는 風·寒·暑·濕·燥·火의 簡稱이다. 六氣中에서 暑氣와 火氣는 基本的으로 同類이나 그 作用과 역할이 다르므로 風·寒·暑·濕·燥·火라 하지 않고 風·寒·濕·燥·君火·相火라 부른다. 風·寒·濕·燥·君火·相火 등 六種의 氣候變化는 基本的으로 一年四季 陰陽消長進退의 變化로부터 派生되어 나온다. 따라서 六氣는 一般的인 變化和 特殊的인 變화를 說明하고 推算한다. 每年의 六氣는 보통 主氣와 客氣로 區分하는데 主氣로는 六化之常을 把握하고 客氣로는 六化之變을 把握한다. 또 客氣와 主氣가 相合한 것을 客主加臨이라 稱하는데 氣候의 複雜한 變화를 進一步하여 把握할 수 있다.

여기에 對한 內容을 하나하나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十二支化氣

天干인 五行과 그의 概念을 變化시킴으로써 五運이란 새로운 概念의 運動이 생긴 것과 같이 地支인 六氣도 그 基本概念이 變化함으로써 새로운 概念의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一般的으로 十二支化氣라 부른다.

干支甲子의 條에서 잠깐 言及한 것처럼 子午는 少陰君火로 化하고, 丑未는 太陰濕土로 化하고, 寅申은 少陽相火로 化하고, 卯酉는 陽明燥金으로 化하고 辰戌은 太陽寒水로 化하고 巳亥는 厥陰風木으로 化하게 된다.

2. 主 氣

1) 主氣의 概念

主氣는 主運의 意義와 基本的으로 같으며 역시 每年 各 季節 氣候의 常規變化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變化는 해마다 固定不變하므로 主氣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主氣는 客氣와 달리 地에서 作用하는 五行之化氣이므로 地氣라고도 부른다.

類經圖翼에서는 “主氣者 地氣也 在地成形 靜而守立 謂木火土金水 分主四時而司地化 以爲春夏秋冬 歲之常令者 是也”라 하였다.

主氣는 風木, 君火, 相火, 濕土, 燥金, 寒水의 六氣로 區分되 春夏秋冬 二十四節氣에 分主하여 一年中의 서로 다른 變化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의 順序는 主運과 마찬가지로 木火土金水의 五行相生의 順序를 따라 排列되며 언제나 風木에서 始作하여 寒水에서 끝난다. 或者是 一年四時 二十四節氣를 六步(六氣主時)로 나누어 每 一年마다 固定된 一氣가 支配하므로 主氣라고 稱한다고 말하는 者도 있다. 그리고 每步는 各各 60日 87刻半(60日 87刻半×6=365日 25刻)으로 構成되며 各各 四個節氣를 包含하고 있다.

各氣가 自然界와 人體에 미치는 影響은 그와 相關되는 五行의 特徵에 依해서 把握할 수 있는데 例를 들어 風氣가 主時하는 第一步에는 各 方面에서 木과 關聯된 狀況이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에 依據해 類推하면 理解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主氣와 客氣가 用事할 때 六氣의 順序에 差異가 있으므로 이에 各別히 注意하여야 한다. 主氣에 있어 厥陰風木이 初氣가 되는 것은 木야호로 春氣가 始作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木生火하므로 君火, 相火가 다음에 이어지고 火生土하므로 太陰濕土가 다음이 된다. 그리고 土生金하므로 陽明燥金이 다음이 되고 金生水하므로 太陽寒水가 다음을 이어 相生에 依해 그 政令을 布하니 天道가 左旋하는 自然的인 順序이

다. 그러나 客氣의 次序에 있어서는 陰陽多少의 差異에 따라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順序로 循環한다.

初之氣는 大寒에서 春分까지, 二之氣는 春分에서 小滿까지, 三之氣는 小滿에서 大暑까지, 四之氣는 大暑에서 秋分까지, 五之氣는 秋分에서 小雪까지, 終之氣는 小雪에서 大寒까지 支配한다.

3. 客 氣

1) 客氣의 概念

客은 主와는 相對的인 말로 各年 氣候上의 異常變化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에도 비록 一定한 規律이 있지만은 해마다 轉移하여 固定不變하는 主氣와 같지 않으며 한번 지나간 後 一定한 時間이 지나야만 다시 도래하는 것이 客과 恰似하므로 客氣라 부른다.

앞에서 主氣는 地氣에 屬한다고 말했는데 客氣는 이와달리 天에서 作用하는 五行之化氣이므로 天氣라고 부른다. 地는 陰으로 靜을 主하므로(여기서 靜은 動과 相對的으로 말한 것이지 絕對的으로 靜止不動하는 것은 아니다) 主氣의 六步는 春木에서 始作하여 冬水에서 끝나 恒常 動而不息한다. 類經圖翼에서는 이를 “客氣者 天氣也 在天爲氣 動而不息 乃爲天之陰陽 分司天在泉左右四間之六氣者 是也”라 하였다. 客氣는 主氣와 마찬가지로 風, 濕, 燥, 寒, 君火, 相火의 여섯으로 나뉘며 五行의 特異點은 主氣와 一致한다. 그리고 六步로 나뉘어 一年 24節氣를 支配하는데 一步가 主氣와 마찬가지로 60日 87刻半을 支配하며 交司時刻도 主氣와 完全히 一致한다.

다른 點은 客氣는 每 年中의 各 節序를 主管하는 外에 또한 全年의 變化를 概括하고 있는 點이다. 客氣는 12年만에 一轉하여 이 12年 동안에는 年年不同하므로 客氣는 各 年度의 具體的인 變化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客氣의 六步는 司天之氣, 在泉之氣, 上下左右의 四間氣로 構成된다. 이 六步의 次序는 陰陽先後의 次序에 따라 排定이 되는데 먼저 三陰이 行하고 뒤에 三陽이 따른다. 이것이 또한 主氣와 다른 點이다. 앞의 主氣에서도 言及했듯이 三陰의 順序는 厥陰이 처음이 되고 다음이 少陰이 되고 그 다음이 太陰이 되는데 그 理由는 厥陰이 一陰이고 少陰이 二陰이고 太陰이 三陰이 되기 때문이다. 三陽의 順序는 少陽, 陽明, 太陽으로 進行되는데 이것 역시 少陽이 一陽이고 陽明이 二陽이고 太陽이 三陽이 되기 때문이다.

三陰三陽을 合하여 順序를 定하면 一厥陰, 二少陰, 三太陰, 四少陽, 五陽明, 六太陽이 되는데 이것이 上下左右에 分布하여 司天도 되고 在泉도 되며 또한 間氣도 되어 司天, 在泉, 四間氣의 六步를 이루어 進行한다.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 “子午之歲에 上見少陰하고 丑未之歲에 上見太陰하고 寅申之歲에 上見少陽하고 卯酉之歲에 上見陽明하고 辰戌之歲에 上見太陽하고 巳亥之歲에 上見厥陰하니 少陰이 所謂標也 厥陰이 所謂終也”라 하여 客氣의 順序에 差異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六十年 陰陽之序가 子午에서 始作하므로 少陰이 標首가 되고 巳亥에서 끝나므로 厥陰이 終盡이 된다고 말한 것이므로 위의 內容과 距離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內容은 地支에 子午가 든 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을 하고 丑未가 든 해에는 太陰濕土가 司天을 하며 寅申이 든 해에는 少陽相火가 司天을 하고 卯酉가 든 해에는 陽明燥金이 司天을 하면 辰戌이 든 해에는 太陽寒水가 司天을 하고 巳亥가 든 해에는 厥陰風木이 司天을 하며 大菁而環會하는 理致를 說明하고 있다.

客氣의 太過와 不及에 對해 說明하면 子·寅·辰·午·申·戌의 六陽年은 모두 太過之年이 되고 丑·卯·巳·未·酉·亥의 六陰年은 모두 不及之年이 되어 太過와 不及이 해마다 交叉하고 있다. 太過之年에는 氣가 항시 天時보다 먼저 이르므로 生·長·化·收·藏의 氣化運行이 항상 빠르고 不及之年에는 氣가 항시 天時보다 늦게 이르므로 氣化運行이 항상 느리게 된다. 素問의 六元正紀大論에 있는 “子午之氣 凡此少陰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은 위의 說明을 反證해 주는 內容이 된다.

2) 司天·在泉·四間氣

司天·在泉의 四間氣는 客氣의 六步로 主歲之氣가 司天이 되어 三之氣가 되고 司天의 맞은편에서 相對하고 있는 것이 在泉이 되고 終之氣에 該當한다.

그리고 司天의 左方을 天之左間이라 하고 右方을 天之右干이라 하며 在泉의 左方을 地之左間이라고 하고 在泉의 右方을 地之右間이라 한다.

여기서 間은 司天과 在泉의 사이에 間隔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司天과 在泉의 左右에는 모두 一間氣씩이 있으므로 이를 四間氣라고 부른다. 每歲의 客氣는 恒常 司天前의 第二位에서 始作하니 下의 圖表에서 地之左間이 該當되며 이것이 初之氣가 된다. 이곳부터 右向退行하면 二之氣에 이르니 天之右間이 되며 三之氣는 司天 自身이 된다. 이어서 四之氣는 天之左間이 되고 五之氣는 地之右間이 되며 終之氣는 在泉 自身이 된다.

4. 客主加臨

素問入式運氣論奧의 論交六氣時日條에서 “客氣 乃行歲中之天命 天命所至 則又有寒暑燥濕風火之化 主氣 則當祗奉客之天命”이라 하였다. 이는 主氣는 비록 固定되어서 一時를 主管하나 客氣는 歲支의 變更에 따라 해마다 主氣의 위에서 天命을 行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마다 輪轉하는 客氣가 固定된 主氣의 위에 加臨하여 氣化의 變化를 發生시키는 것을 客主加臨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作用하는 客氣는 一年中 氣候의 特殊變化이고 땅에서 作用하는 主氣는 一年中 氣候의 一般變化로서 비록 上下動靜이 分別이 되지마는 相互間의 關係는 매우 密接하므로 이 둘을 綜合하여 比較分析해야만 各種의 複雜한 變化規律을 把握할 수 있다. 客主加臨은 바로 이러한 客氣와 主氣를 結合하여 客主兩氣六步의 變化와 이로부터 나타나는 氣候의 特徵 및 이것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것이다. 素問의 五運大論에서 말한 “上下相遭 寒暑相臨”과 普濟方의 五運六氣圖에서 “以客加主 而推其變”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客主加臨表

六 步	初之氣	二之氣	三之氣	四之氣	五之氣	終之氣	
客 氣	子午年	太陽寒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丑未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寅申年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厥陰風木
	卯酉年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厥陰風木	少陰君火
	辰戌年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巳亥年	陽明燥金	太陽寒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主 氣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	

V. 運氣相合

每年의 年號는 모두 天干과 地支의 組合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이미 言及한 것처럼 天干은 各年の 運을 分析하는데 使用되고 地支는 各年の 氣를 分析하는데 使用된다. 素問의 氣交變大論에서는 歲運에 對하여 詳細히 말하였고 六元正紀大論에서는 司天에 對해 詳細히 말하였을 뿐 運氣가 合變하는 理致에 對해서는 仔細한 言及이 적으므로 이 內容은 內經을 通해 따로 研究하여야 한다.

運과 氣의 兩者는 孤立된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恒常 相互作用하며 相互影響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情況을 素問의 六元正紀大論에서는 “願聞同化 何如 曰風溫春化同 熱曠昏火夏化同 勝與復同

燥清煙露秋化同 雲雨昏暝埃長化同 寒氣霜雪冰冬化同 此天地五運六氣之化 更用盛衰之常也”라 하여 同化로서 說明하고 있다. 이처럼 運氣의 사이에서는 同化的 關係가 있으므로 每年마다 完全한 狀況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運이나 氣의 어느 한쪽 面만을 分析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各年の 干支를 結合하여 分析해야만 한다. 즉 다시 말해 運과 氣를 結合하여 分析한 以後에만 各年の 大體의인 變化情況을 把握 推算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運과 氣의 盛衰

運과 氣의 盛衰는 運과 氣의 五行生克關係에 根據하여 測定한다. 이때 運이 氣를 生하거나 運이 氣를 克하는 境遇를 모두 運盛氣衰라고 부르고 이와 反對로 氣가 運을 生하거나 氣가 運을 克하는 境遇를 氣盛運衰라고 부른다. 以上の 경우는 모두 4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氣가 運을 生하는 境遇로 이러한 해를 順化라고 부른다. 例를 들어 甲子年の 年干은 甲인데 甲己가 生土하므로 甲子年の 大運은 土運이 된다. 그리고 甲子年の 年支는 子로 子午는 少陰君火가 되어 甲子년에는 少陰君火가 司天하게 된다. 그런데 火와 土사이에는 火生土의 關係가 있으므로 司天之氣가 運을 生하게 된다. 이와 같은 順化에 屬하는 해는 甲子가 一周하는 六十年中에 甲子, 甲午, 甲寅, 甲申, 壬辰, 壬戌, 乙丑, 乙未, 辛卯, 辛酉, 癸巳, 癸亥 등 12년이 있다.

둘째, 氣가 運을 克하는 경우로 이러한 해를 天刑이라 부른다. 例를 들어 己亥年の 年干은 己인데 甲己가 生土하므로 己亥年の 大運은 土運이 된다. 그리고 己亥年の 年支는 亥인데 巳亥는 厥陰風木이 되어 己亥년에는 厥陰風木이 司天하게 된다. 그런데 木과 土사이에는 木克土의 關係가 있으므로 司天之氣가 運을 克하게 된다. 이와 같은 天刑에 屬하는 해는 甲子가 一周하는 六十年中에 庚子, 庚午, 庚寅, 庚申, 戊戌, 辛丑, 辛未, 丁卯, 丁酉, 己巳, 己亥 등의 12년이 있다.

셋째, 運이 氣를 生하는 境遇로 비록 相生이나 子居母位하므로 少逆이라 하고 微病을 초한다. 例를 들어 辛亥年の 年干은 辛인데 丙申이 化水하므로 辛亥年の 大運은 水運이 된다. 그리고 辛亥年の 年支는 亥인데 巳亥는 厥陰風木이 되므로 辛亥년에는 風木이 司天하게 된다. 그런데 水와 木의 사이에는 水生木의 關係가 있으므로 運이 司天之氣를 生하게 된다. 이처럼 少逆에 屬하는 해는 甲子가 一周하는 六十年中에 壬子, 壬午, 壬寅, 壬申, 庚辰, 庚戌, 癸丑, 癸未, 己卯, 己酉, 辛巳, 辛亥 등의 12년이 있다.

넷째, 運이 氣를 克하는 境遇로 이러한 해를 不和라고 부른다. 例를 들어 甲辰年の 年干은 甲인데 甲己가 化土하므로 甲辰年の 大運은 土運이 된다. 그리고 甲辰年の 年支는 辰인데 辰戌는 太陽寒水가 되므로 甲辰년에는 寒水가 司天하게 된다. 이때 土와 水의 사이에는 土克水의 關係가 있으므로 運이 司天之氣를 克하게 된다. 이처럼 不和에 屬하는 해는 甲子가 一周하는 六十年中에 丙子, 丙午, 丙寅, 丙申, 甲辰, 甲戌, 丁丑, 丁未, 癸卯, 癸酉, 乙巳, 乙亥 등의 12년이 있다.

運과 氣의 盛衰를 分別하는 目的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各年마다 變化의 主次를 產出할 수 있는데 運盛氣衰한 해에는 그 해의 變化에 있어 運이 主가 되고 氣가 次가 되며 反對로 氣盛運衰한 해에는 그 해의 變化에 있어 氣가 主가 되고 運이 次가 된다. 둘째는 運氣의 盛衰에 根據하여 各年の 複雜한 變化를 推算할 수 있는데 順化의 해에는 變化가 比較的 平和하고 少逆 및 不和의 해에는 變化가 比較的 크고 天刑의 해에는 變化가 特히 劇烈하다.

2. 天符歲會(運氣同化)

天符와 歲會는 運과 氣가 다르게 結合된 情況에 根據하여 命名한 것으로 天符에서는 또 同天符와 太乙天符로 나눌 수 있고 歲會에서는 同歲會를 區分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天符의 해에는 氣候의 變化가 比

較的 緩慢한데 同歲會의 해는 歲會와 비슷하고 太乙天符의 해에는 氣候의 變化가 가장 劇烈하다.

1) 天 符

一年의 中運(大運)과 可天之氣의 五行屬性이 서로 合致되는 해를 天符라고 부른다.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 "土運之歲에 上見太陰하고 火運之歲에 上見少陽 少陰하고 金運之歲에 上見陽明하고 木運之歲에 上見厥陰하고 水運之歲에 上見太陰은 奈何오 日天之會也라 故天元玉冊에 日天符"라 하였다.

위에서 말한 天符年을 分析해 보면 6년은 太過年이 되고 6년은 不及年이 된다. 이를 모두 天符라고 부르지만 歲運이 不及한 天符年에 氣候의 變化가 작고 病變도 가볍고 生命의 危險性도 작지만 反對로 歲運이 太過한 天符年에는 氣候의 變化와 病變과 生命의 危險性이 比較的 크다는 것을 說明한 內容이다.

2) 歲 會

一年의 中運과 歲支의 方位五行屬性이 서로 合致되는 境遇를 歲會라 부른다.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 는 이를 "木運이 臨卯하고 火運이 臨午하고 土運이 臨四季하고 金運이 臨酉하고 水運이 臨子를 所謂歲會니 氣之平也"라 말하고 있다.

歲會에 屬하는 해는 丁卯, 戊午, 己酉, 丙子の 8年이 있다.

3) 同天符

陽年의 太過한 中運이 在泉之氣와 相合하는 境遇를 同天符라고 부른다.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 具體的으로 "太過而同地化者三 甲辰甲戌太宮 下加太陰 壬寅壬申 太角 下加厥陰 庚子庚午太商 下加陽明 如是者三 加者何謂 日太過而加 同天符"라 하였다.

4) 同歲會

陰年의 不及한 中運이 在泉之氣와 相合하는 境遇를 同歲會라고 부른다. 素問의 六元正紀大論에서 "不及而同地化者三 癸巳癸亥徵 下加少陽 辛丑辛未少羽 下加太陽 癸卯癸酉少徵 下加少陰 如是者三 不及而加 同歲會也"라 하였다.

5) 太乙天符

天符이면서 歲會에 屬하는 해를 特別히 太乙天符라 부른다. 이를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는 "天符歲會何如오 日太乙天符之會也"라 하였다. 즉 戊午, 乙酉, 己丑, 己未의 4年은 12年中에도 屬하고 歲會 8年中에도 屬하므로 이 4年을 太乙天符의 해라고 부른다.

6) 天符 歲會의 貴賤 및 中病輕重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 "帝日其貴賤은 何如오 岐伯이 日天符爲 執法이오 歲會爲 行令이오 太乙天符爲 貴人이니이다 帝日邪之中人也奈何오 岐伯이 日中執法者는 其病이 速而危하고 中行令者는 其病이 徐而持하고 中貴人者는 其病이 暴而死"라 하였다. 이는 官職의 高低를 用하여 歲會, 天符 太乙天符之年에 있어서의 氣候變化에 對한 影響의 大小 및 中邪後의 病情輕重을 說明한 말인데 同篇에서 歲會 8年에 對해서만 '氣之平也'라 하였으니 其他의 해의 變化가 不平하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平 氣

五運에 있어서 太過도 아니고 不及도 아닌 境遇를 平氣라 하는데 氣候의 變化가 無偏無頗하며 不勝不衰하고 五運이 각자 자기의 性을 지켜 그 平衡을 維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는 五音을 빌어서 各

各 正宮, 正商, 正角, 正徵, 正羽라 表現한다. 그런데 十子이 五運으로 化함에 있어 陽에 屬하지 않으면 陰에 屬하여 陽은 太過가 되고 陰은 不及이 되는데 어찌하여 平氣가 나올수 있는가? 이를 張介賓 “平氣는 與運太過而被抑하며 運不及而得助也”라고 說明하고 있다. 또 于德符의 境遇도 平氣로 分類하고 있는데 이 해에는 物阜民安하며 疾疫이 平興한다.

1) 運太過而被抑

이른바 運太過而被抑은 歲運이 太過한 해에 만약 司天之氣의 五行屬性이 그 運을 克하는 關係로 形成되면 그 해의 太過한 歲運이 司天之氣의 克制를 받아 太過에 이르지 못하고 平氣를 形成한다. 例를 들어 戊辰, 戊戌年의 年于은 모두 戊로 火가 大運이 되며 戊가 陽子이므로 火運太過之年이 된다. 五行에 있어 水와 火는 水克火의 關係가 있으므로 太過한 火가 司天하는 寒水之氣의 抑制를 받아 太過之令을 行할 수 없으므로 戊辰, 戊戌年은 火運平氣之年이 된다. 이를 素問의 五常政大論에서는 “上羽 與正徵同也”라 하였다.

또 庚子, 庚午, 庚寅, 庚申年은 年于이 모두 庚으로 金運太過之年이 되고 子午寅申의 해에는 各各 少陰 君火와 少陽相火가 司天하여 火克金의 關係로 太過한 金을 抑制하고 있으므로 이 네해에는 金運平氣之年이 된다. 이를 五常政大論에서는 “上徵 與正商同也”라 하였다. 甲子가 一周하는 六十年中에 運太過而被抑하여 平氣가 되는 해로는 以上の 6年이 있다.

2) 運不及而得助

運不及而得助하는 境遇는 다시 歲運이 不及한 해에 五行屬性이 같은 氣가 司天하여 도움을 받는 境遇와, 年支의 方位五行屬性이 같아서 이의 도움을 받아 平氣를 이루는 境遇로 나눌 수 있다. 例를 들어 前者의 境遇는 丁巳, 丁亥年일 때 丁은 大運이 不運이며 丁이 陰子에 屬하므로 不運不及之年이 된다. 그러나 巳亥年은 厥陰風木이 司天하므로 不及한 木運이 司天하는 木氣의 도움을 받아 不及에 이르지 않고 木運平氣之年이 된다. 이를 五常政大論에서는 “上角同正角”이라 하였다.

또 己丑, 己未年은 年于인 氣가 土에 屬하고 陰子이므로 土運不及之年이 된다. 그러나 丑未年은 太陰 濕土가 司天하므로 不及한 土運이 司天하는 土氣의 도움을 받아 不及에 이르지 않고 土運平氣之年이 된다. 이를 五常政大論에서는 “上宮同正宮也”라 하였다.

역시 乙酉, 乙卯年은 年于인 乙이 金에 屬하고 陰子이므로 金運不及之年이 된다. 그러나 卯酉年은 陽明燥金이 司天하므로 不及한 金運이 司天하는 金氣의 도움을 받아 不及에 이르지 않고 金運平氣之年이 된다. 이를 素問의 五常政大論에서는 “上商同正商也”라 하였다.

年支의 方位 五行屬性이 같아 이의 도움으로 平氣를 이루는 해는 辛亥年의 年于는 辛으로 水運이 되며 陰子에 屬하므로 水運不及之年이 된다. 그러나 辛亥의 해는 五行에 있어 北方水에 屬하므로 不及한 水運이 地支 亥水의 도움을 받아 不及에 이르지 않고 水運平氣之年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에 屬하는 해는 辛亥年을 비롯하여 丁卯, 癸巳, 己丑, 乙未, 乙酉의 6年이 있는데 이중 己丑, 丑未, 乙酉의 해는 前者와 重複이 된다.

따라서 甲子가 一周하는 60年中에 運不及而得助하여 平氣를 이루는 해는 모두 9年이 있다.